

보도일시	2025. 05. 19. (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대응위, 재생에너지 현장 ‘경청투어’ 실시

-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본 사회”
- 지역 경제 살리고 붕괴된 공동체 회복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지난 18일(일), 전남 영광의 광백태양광발전소, 낙월해상풍력발전소, 영농형태양광발전소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경청투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기후공약인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실제 추진되는 현장을 찾아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어떻게 지역 소득과 기후복지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는 경청 투어를 통해 시설 운영 현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수용성 문제, 이익 공유 방식, 지역 주도의 참여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운영 주체와 주민들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 실질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후위는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방문한 광백태양광발전소는 100MW급 대규모 태양광단지,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도 함께 조성되어 있어, 주민 수용성 개선과 소득 공유 측면에서 주목받

고 있다.

또한, 낙월도 해상풍력사업은 주민이 직접 수익을 배분받는 ‘바람연금’ 모델 실현이 논의 중인 대표 사례로 전남 소재 19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염산면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이 주도해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며 햇빛연금을 실현하고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자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성곤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가는 상생의 방식에 있다.” 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의 열쇠이자,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기후복지 정책이자 기본사회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역과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법을 만드는 기후정치의 중심이 되어, ‘진짜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 고 밝혔다. /끝/



<사진> 2025. 05. 18.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재생에너지 현장 경청투어(광백태양광발전소 앞)



<사진> 2025. 05. 18.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재생에너지 현장 경청투어(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사진> 2025. 05. 18.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재생에너지 현장 경청투어(낙월해상풍력발전소)